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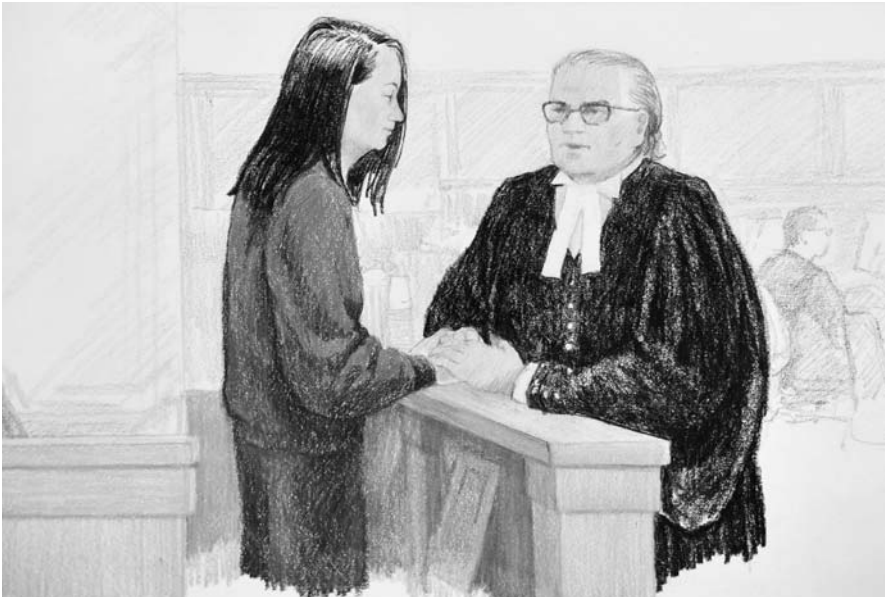
체포·억류·보석...긴박한 ‘화웨이 외교전’

캐나다 전직 외교관 中억류
명 부회장 84억 보석 석방
트럼프 “명 수사 개입할 것”
무역전쟁 ‘카드’ 사용 의지

90일간의 휴전 합의로 미중 무역전쟁의 충성이 잦아들기 무섭게 ‘화웨이 사건’을 둘러싸고 전격 체포와 보복성 억류, 보석 허가로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 캐나다의 삼각 외교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관련 조사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던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의 억류 소식이 알려진 건 11일(캐나다 현지 시간) 오전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던 코프릭에게서 돌연 소식이 끊기면서 당장 열흘 전인 1일 캐나다 당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명완저우(46)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낮 캐나다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직접 나서 코프릭의 중국 억류를 공식 확인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캐나다 당국은 코프릭 억류와 명 부회장 체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명시적 징후는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으나 전날 중국이 명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 ‘엄중한 결과’를 경고했던 터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명완저우부회장(왼쪽)이 10일(현지시간)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보석 심리에 참석, 변호인에게 말하는 모습을 스케치한 것. /연합뉴스

라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도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캐나다 국민 억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명 부회장에 대한 ‘맛볼’로 중국이 코프릭을 억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엔 둔 신속한 대응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나아가 중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추가 발령하는 방안까

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캐나다와 미국 당국이 코프릭 억류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직후 명 부회장이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 출석했다. 명 부회장은 미국이 제기하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결백하고 지병이 있다며 1500만 캐나다 달러(124억원)를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한 상태였다.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법원은 심리 끝에 보석금 1000만 캐나다 달러(84억 5000만원)에 전자감시를 받으며 밴쿠버에 머무는 조건을 달아 명 부회장을 석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코프릭 억류 확인으로 캐나다와 중국이 긴장의 고삐를 재차 팽팽히 당기게 된 날 명 부회장 석방이라는 변수가 또다시 돌출한 것이다.

일단 법원의 결정으로 체포 상태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명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코프릭 억류 문제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화웨이 사태’의 추이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의 명 부회장 수사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나라에 좋은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것”이라며 “분명히 역대 최대 무역 합의가 될 것에 좋다고, 국가안보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하다면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 명 부회장 수사를 압박 카드로도, 유화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명 부회장의 전격 체포와 석방, 코프릭의 억류로 긴박하게 전개돼온 ‘화웨이 사태’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곡절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연합뉴스



아마존



구글

日,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갑질 조사 착수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만 팽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거래처에 대한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이들 기업이 정보 독점 및 관련 시장 지배력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에 대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일본에서 ‘가파(GAFA)’로 불리는 4개 업체가 중심이다. 가파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아마존 머리글자의 약자다. 이들 기업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래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우선 거대 IT기업의 거래처들로부터 갑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문제의 기업들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거대 IT기업의 갑질 등을 감시할 상시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내년 중반까지 조직 골격을 마련하고 2020년에 정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야스쿠니 인근 화재...홍콩인 남녀 조사

12일 오전 7시께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있는 신문(정문에 해당) 부근에서 불이 났지만, 곧바로 진화됐다.

야스쿠니신사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불은 신문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곧바로 꺼지면서 다른 건물 등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도쿄 경시청은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남녀 2명을 대상으로 화재 당시 상황과 경위, 방화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우리는 홍콩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경시청은 일단 남성을 신사 경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함께 있던 여성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함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일본 지도층이 참배나 공물 납부를 하는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총격 사건 4명 숨져

프랑스 동부의 독일 접경지인 스트라스부르 시내 중심부에서 11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시내 크리스마스 시장 근처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뒤 도주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스트라스부르 태생의 세카트 셰리프(29)로 확인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총격범이 보안기관에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밝혔고, 스트라스부르 지

방정부는 용의자가 정보기관의 감시목표에 올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숫자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와 현장 의료 요원들은 4명이라고 확인했으나 지방정부는 2명이라고 발표했다. 부상자 역시 현지 언론에 따라 11명에서 12명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중 약 절반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의회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번 사건으로 폐쇄된 상태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사건으로 130명이 숨지는 등 앞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러 우주인 8시간 우주유영 ‘소유스’ 조사

20일 지구 귀환 앞두고 캡슐에 난 구멍 밀폐제 수거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러시아 우주인들이 12일(이하 한국시간) 8시간 가까운 힘든 우주유영을 통해 소유스 캡슐에 난 드릴 구멍에 대한 외부 조사를 했다. 올레그 코노넨코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는 이날 0시59개 러시아 도킹 모듈 피르스(Pirs)의 해치를 열고 나와 문제의 소유스 MS-09 캡슐로 접근하는 우주유영을 시작했다.

피르스는 ISS 선미에 있는 즈베즈다 모듈의 지구 쪽 접속구에 연결돼 있고 소유스 MS-09는 건넌편의 자라 모듈에 도킹돼 있다.

코노넨코와 프로코피예프는 모스크바 외곽의 지상 관제센터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각각 붉은 줄과 푸른 줄이 들어간 우주복을 입었다.

약 30m 거리에 불과했지만 기종기 팔에 안전장치를 걸고 소유스 MS-09 캡슐에 접근하는 데만 4시간 가까이 걸렸다.

소유스 캡슐에 도착한 뒤에는 캡슐을 싸고 있는 25cm 두께의 단열 및 운석 파편 보호 덮개를 칼로 제거하는데도 애를 먹

었다. 두 우주인은 이런 과정을 거쳐 5시간여 만에 선체에 난 작은 구멍을 확인했다. 러시아 지상관제센터는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온 구멍이다”라고 했으며, 우주인들은 선체 안쪽에 난 것과 같은 구멍 주변의 드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두 우주인은 구멍에서 튀어나와 있는 검은색 예폭시 밀폐제를 수거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은 두 우주인이 채취한 샘플은 오는 20일 소유스 MS-09가 지구로 귀환할 때 가져와 관련 기관에서 분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측은 소유스 MS-09가 지구로 귀환하기 전에 외부조사를 진행하길 원해왔다.

소유스 MS-09 캡슐은 프로코피예프를 비롯해 지난 6월부터 ISS에서 생활해온 우주인 3명을 태우고 귀환할 예정이나 드릴 구멍이 난 부분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떼어내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연합뉴스

러시아 관료들 쿠릴 영토 강경발언 잇따라

日 외상은 기자회견서 ‘못 들은 척’ 답변 회피...극명한 대조

일본과 러시아가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입각해 평화조약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 요인들이 이따 들어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섬 반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잇따라 강경발언을 쏟아내 일본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러시아 요인들의 강경발언은 러시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 러시아 정책 관련 발언을 적극 자제하고 있는 고노다로 외상 등 일본 측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극동 담당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러일평화조약협상과 관련, “나는 오랫동안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에 배석했지만 섬반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공동경제 활동문제가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쿠릴열도를 관할하는 극동 사할린주에서 이 문제에 관해 언론에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향후 대일협상에서 러시아 측 책임자를

말기로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지난 7일 “평화조약 체결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한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 점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쿠릴열도가 당시 소련영토가 됐으며 러시아가 옛 소련을 승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소공동선언에는 “평화조약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 섬을 양도한다”고 돼 있으나 미하일 갈루진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3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조건에서 양도할지, 주권 양도인지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1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본이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러시아 영토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협정 체결 교섭개시의 조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질문을 듣지 못한 적 “다들 질문 하세요”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런 장면은 이날 회견에서만 4차례나 반복됐다. /연합뉴스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